

아버지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및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

권희경*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Self-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Interactive Peer Play

Kwon, Heekyoung

본 연구는 아버지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만 3, 4, 5 세 유아 195명과 유아의 아버지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와 교사평정, 연구자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언어통제 유형은 지위지향형, 인성지향형, 명령지향형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자아효능감에서는 자아인지, 자아정서와 사회적 유능성에서는 지도력, 유능성, 불안정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서는 놀이단절, 놀이방해,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변인들과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점과 유아의 전인발달 도모에 중요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아버지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 제1저자(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아교육과 교수, bluechess@kku.ac.kr

I. 서론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과 관련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적 수준은 유아의 경험과 언어를 풍부하게 해주며 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도혜숙, 1997).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부모가 사용하는 양육방식은 언어를 통해 유아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하는 언어유형을 파악하고 유아의 발달 및 사회화 과정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허용, 대화, 설명, 설득, 모범 보이기, 제재, 통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변화시킨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행동으로 바꾸어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유아가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즉 부모는 다양한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며 이는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이나 친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도혜숙, 1997; 정현희, 오미경, 1999).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은 인성지향적 통제, 명령지향적 통제, 지위지향적 통제로 분류된다(Bernstein, 1971). 인성지향적 통제는 행동통제 시 유아에게 역할 재량권이 주어지며 개인의 특징, 의도 및 동기를 고려하여 아동지향적, 부모지향적, 타인지향적 통제가 포함된다. 명령지향적 통제는 행동통제 시 유아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부모의 명령, 언어적 벌, 신체적 벌, 자극의 제거, 간접적 벌 등이 포함된다. 지위지향적 통제는 행동통제를 할 때 역할재량권이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받으며 한정된 규칙, 보편적 규칙, 지위적 규칙, 가족적 규칙 등이 포함된다.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통제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정서 및 사회적 유능성, 또래관계, 유아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대인문제 해결력, 또래유능성 등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성원, 김종현, 2005; 김여가, 1997; 남현영, 이소은, 2004; 이미경, 2007; 이양순, 2005; 허정묵, 2005).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전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어통제 유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이었으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취업률 향상, 저 출산, 남녀평등의식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있어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부부와 아이가 외

출을 하거나 가족모임을 갈 경우 엄마가 주로 유아를 돌보는 것이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요즘은 아버지가 포대기를 몸에 걸치고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아버지와 유아가 함께 외출을 하고, 유아용품 구입도 아버지가 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수업이나 다양한 행사에 아버지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고(남진영, 김상미, 2011;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황연덕, 이진숙, 2012)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김낙홍, 이배, 김경숙, 2013; 장소정, 2012; 양경수, 2011; 정재용, 김낙홍, 김지혜, 유은영, 2010) 그중에서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송해영, 엄정애, 2007).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아버지가 지위지향적이거나 인성지향적인 언어 통제 유형일 경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아지며 아버지가 명령지향적인 경우 사회적 능력이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아의 사회적 능력은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상관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즉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은 여아보다는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더 많은 관련성을 보이므로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고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남아와 상호작용할 때 명령지향적 언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송해영, 엄정애, 2007). 아버지가 명령지향적 언어 사용을 많이 할 경우 유아의 공격적 행동이 가장 많고 지위지향적, 인성지향적 순으로 공격성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주미정, 2004). 아버지가 명령지향적 언어유형인 경우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전인발달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조성자, 이승희, 1997).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친사회성을 높이며,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 능력을 높이는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가 가정에서 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구사하는 언어적 유형은 유아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이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낙홍, 장소정, 2012; 남진영, 김상미, 2011; 양경수, 2011;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이배, 김경숙, 2013; 정재용, 김낙홍, 김지혜, 유은영, 2010; 황연덕, 이진숙, 2012).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련성은 아버지의 연구보다는 어머니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정현희, 오미경, 1999) 어머니가 지위지향적이거나 인성지향적인 경우 남아는 또래와 긍정

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지위지향적인 경우 남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지도력이 높다고 보고한 정현희와 최경순(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가 명령지향적인 경우 유아는 또래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협동심이 낮고 사회성도 낮아지며(최경순, 1992) 어머니가 인성지향적 유형일 경우 유아의 자아개념, 정서지능, 친사회적 사고가 높아지고 유아의 전인발달 영역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며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보여준다(김성원, 김종현, 2005; 이윤희, 2000; 장영숙, 강경석, 허은진, 2003; 정혜진, 이완정, 2007; 한민경, 한윤경, 2003).

어머니의 언어 통제 유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전인 발달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전인 발달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므로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능력,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일반적 경향은 무엇인가?
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능력 및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남부 지역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5개 유치원의 만 3, 4, 5 세 유아 195명과 유아의 아버지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 85명(43.6%), 여아 110명(56.4%)이었으며 연령은 만 3세 52명(26.7%), 만 4세 75명(38.5%) 만 5세 68명(34.9%)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0세에서 35세미만이 59명(30.3%), 35세에서 40세 미만이 98명(50.3%), 40세 이상이 38명(19.5%)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39명(20%), 전문대졸 39명(20%), 대졸 90명(46.2%), 대학원졸 27명(13.8%) 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57명(29.2%), 전문직 56명(28.7%), 자영업 37명(19%), 기술직36명(18.5%), 서비스업 9명(4.6%)

이었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는 도혜숙(1997)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총 75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인성지향형 25문항, 명령지향형 25문항, 지위지향형 25문항이다. 인성지향형 문항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할 때 아동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이 동기, 의도, 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특징, 의도, 동기의 관점을 고려한 아동지향적, 부모지향적, 타인 지향적 통제 등을 포함한다. 명령지향형 문항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할 때 유아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부모의 명령, 언어적 벌, 신체적 벌, 자극의 제거, 간접적 벌 등이 포함된다. 지위지향형 문항은 유아의 행동이 주로 가족에서의 형식적 지위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한정된 규칙, 보편적 규칙, 지위적 규칙, 가족적 규칙 등이 행동 규제에 포함된다.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인성지향형 .94, 명령지향형 .93 지위지향형 .93 이었다.

2) 유아의 자아효능감

유아의 자아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전인옥, 이경옥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자아효능감 검사(Young Children's Self-Efficacy Scale: YCSSES)를 사용하였다. YCSSES는 유아의 자아효능감을 인지, 신체, 사회·정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한 도구로 총 25문항이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인지영역(9문항), 신체영역(7문항), 사회·정서영역(9문항)이다. 인지영역 문항은 '나는 어려워 보이는 일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신체 영역은 '나는 다리가 튼튼해서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다', 사회·정서 영역은 '나는 누구하고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인지영역 .88, 신체영역 .85, 사회·정서 영역 .87이었다.

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검사는 Pease와 그의 동료들(1979)이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 ISCS(Iowa Social Competency Scale: Preshool Form)를 권희경(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이용하였다. 검사의 하위영역은 지도력(9문항), 유능성(5문항), 과민성(5문항), 불안정성(4문항)이며 총 23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과민성의 3개 문항과 불안정성의 3개 문항은 역 채점 했다. 지도력은 낯선 친구들과 자유로이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논다’, 유능성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이며 ‘자기가 놀고 있을 때 , 그 놀이에 다른 아이를 잘 끼워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과민성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아이들이 놀리면 쉽게 화를 낸다’ 이다. 불안정성은 불안해하고 낯선 사람을 기피하고 소심한 행동을 의미한다. ‘유치원에서 낯선 곳에 가면, 불안해하고 교사에게 매달린다’ 등의 문항이다. 과민성과 불안정성의 경우 역 채점한 문항이 있으므로 점수가 높으면 유아가 과민하고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ISC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지도력 .90, 유능성 .87, 과민성 .86, 불안정성 .87이었다.

4)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상호작용적 또래놀이는 권희경(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펜실베니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도구(PIPPS-T)중 교사용 도구를 이용하였다. 각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한 후 평정하며 상호작용적 또래놀이(9개 문항), 놀이방해(15개 문항), 놀이단절(10개 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중 2개 문항은 중복문항이어 총 문항 수는 32개 문항이다. 상호작용적 또래놀이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포함된 문항으로 ‘다른 친구를 도와주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놀이방해는 ‘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시작 한다’ 등의 공격적 놀이행동과 관련된 문항이다. 놀이단절은 ‘놀이집단 밖에서 배회하기’ 등으로 위축된 놀이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신뢰도 계수는 상호적 또래놀이 .90, 놀이방해 .88, 놀이단절 .88 이었다.

3. 연구절차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도구의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만 3세, 4세, 5세반 유아 각각 2명씩 총 6명의 아버지가 언어통제유형 질문지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각 반 교사는 사회적 유능성 및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평가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잘 되지 않은 경우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유아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평가하여야 함으로 연구자가 교사들에게 문항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유아

의 사회적 유능성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교사용 평정척도로 교사의 관찰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유아의 자아효능감은 연구자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자에 대한 유아의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는 면담을 실시하기 일주일 전 1-2회 참여관찰을 하면서 유아와 래포를 형성하였다. 유아 1인당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 아버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께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어머니가 유아의 아버지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참여를 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3주후에 유아를 통해 수거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아버지 언어통제 유형,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및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버지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 작용적 또래놀이의 일반적 경향

<표 1> 아버지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평균, 표준편차 및 척도점수 (N=194)

변 인		평균 및 표준편차 <i>M(SD)</i>	문항수	척도점수
아버지 언어통제유형	인성지향형	51.34(19.43)	25	2.85
	명령지향형	54.73(18.99)	25	2.16
	지위지향형	57.07(17.11)	25	3.08
자아효능감	자아인지	36.00(5.96)	9	4.34
	자기신체	26.30(4.00)	7	3.75
	자기정서	34.00(5.27)	9	3.77
사회적 유능성	지도력	31.31(6.87)	9	3.47
	유능성	19.90(3.77)	5	3.98
	과민성	18.66(2.40)	5	3.73
	불안정성	14.25(2.41)	4	3.56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상호적또래놀이	18.13(3.29)	9	2.01
	놀이방해	30.90(7.48)	15	2.06
	놀이단절	18.49(5.15)	10	1.85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평균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인 인성지향형, 명령지향형, 지위지향형의 평균점수는 51.34, 34.73, 57.07로이었으며 지위지향형 점수가 가장 높고, 인성지향형, 명령지향형의 순이었다. 유아의 자아효능감은 자기인지, 36.00, 자기신체 26.30, 자기정서 34.00 으로 자기인지가 점수가 가장 높고 자기정서, 자기신체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는 평균점수가 지도력(31.31), 유능성(19.90), 과민성(18.66), 불안정성(14.25)이며 평균을 문항수로 나눈 척도점수로 비교해 볼 때 유능성이 점수가 가장 높고 지도력 점수가 가장 낮았다.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경우 상호적 또래놀이 평균은 18.13 이었으며 놀이방해는 30.90, 놀이단절은 18.49점 이었다. 이를 척도점수로 비교해 볼 때 놀이방해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호적 또래놀이 놀이단절 순이었다.

2. 아버지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및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

<표 2> 아버지 언어통제 유형,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상관관계

	자기 인지	자기 신체	자기 정서	지도력	유능성	과민성	불안정성	상호적 또래놀이	놀이 방해	놀이 단절
아버지 인성지향	.46***	.30	.56***	.16	.38**	-.10	-.47**	.41**	-.37**	-.29**
언어통 명령지향	-.43**	-.17	-.38**	-.38**	-.49**	.18	.39**	-.55**	.40**	.23**
제유형 지위지향	-.28**	-.19	.22	-.46**	-.39**	.12	.27**	-.27**	-.11**	.15

** $p < .01$ *** $p < .001$

아버지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및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의 하위 영역 중 인성지향형은 유아의 자아인지($r=.46, p<.001$), 자기정서($r=.56, p<.001$), 유능성($r=.38, p<.01$), 상호적 또래놀이($r=.41,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중에서 자기정서와는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호적 또래놀이, 자아인지, 유능성과는 보통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성지향형은 불안정성($r=-.47, p<.01$), 놀이방해($r=-.37, p<.01$), 놀이단절($r=-.29,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안정성과는 높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놀이 방해, 놀이 단절과는 보통 정도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명령지향형은 유아의 불안정성($r=.39, p<.01$), 놀이방해($r=.40, p<.001$), 놀이단절($r=.2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인지($r=-.43, p<.01$), 자기정서($r=-.38, p<.01$), 지도력($r=-.38, p<.01$), 유능성

($r=-.49, p<.01$), 상호적 또래놀이($r=-.55,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명령지향형은 상호적 또래놀이, 유능성과는 높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안정성, 놀이 방해, 놀이단절은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위지향형은 불안정성($r=.2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인지($r=-.28, p<.01$), 지도력($r=-.46, p<.01$), 유능성($r=-.39, p<.01$), 상호적 또래놀이($r=-.27, p<.01$), 놀이방해($r=.11,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도력과는 가장 높은 부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놀이방해와는 낮은 부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 4, 5세 유아의 아버지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중 지위지향형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성지향형이었으며 명령지향형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경혜, 안선희, 2005; 도혜숙, 1997; 이영화, 유가효, 2001; 조성자, 이승희, 1997).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지위지향형 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가정 문화가 지위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사회현상 등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아직까지도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가정에서의 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녀 양육 방식도 가정에서의 지위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대화와 설명을 통해 하기보다는 자식이니까 이런 상황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버지 말은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자신의 지위를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의 아버지들은 명령지향형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관련이 있었다. 아버지의 인성지향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아효능감 중 자아인

지, 자기정서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가 아동지향적이고 타인지향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경우 유아의 자아인지와 자기정서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조성자, 이승희, 1997).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명령적 어휘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어휘를 많이 사용할 경우 자녀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온정적인 태도로 말할 때 자녀들은 규칙을 더 잘 수용하며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궁극적으로 자녀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밑바탕이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은 사회적 유능성 하위영역 중 유능성과는 긍정적 관계를 불안정성과는 부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인인 동시에 유아의 불안정성은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인성지향적 유형인 경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아지며 친사회적 행동이 많아지고 공격성이 줄어든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송해영, 엄정애, 2007; 이윤희, 2000; 정현희, 최경순, 1997; 주미정, 2004).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상호적 또래놀이와는 긍정적 관계를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는 부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 즉 아동중심적이고 타인중심적인 언어로 유아와 상호작용할 경우 유아가 놀이를 할 때 또래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협동적인 놀이를 많이 하며 다른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놀이를 단절시키는 행동을 적게 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고 친구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정현희, 오미경, 1999)

반면 아버지가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인 경우 유아의 자아인지, 자기정서, 지도력, 유능성, 상호적 또래놀이와 부적인 관계를 불안정성과는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아버지가 명령지향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록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가 적어지고 유아의 불안정성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조성자, 이성희, 1997). 아버지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주미정, 2004), 유아의 자아존중감도 낮추게 하여 유아의 전인발달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조성자, 이승희, 1997).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청소년이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행복감이 낮아졌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김

낙홍, 장소정, 2012; 남진영, 김상미, 2011; 양경수, 2011;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이배, 김경숙, 2013; 정재용, 김낙홍, 김지혜, 유은영, 2010; 황연덕, 이진숙, 2012) 아버지가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양육방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유형도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유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자아인지, 지도력, 유능성, 상호적 또래놀이, 놀이방해와는 부적인 관계를 불안정성과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지위지향적일수록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를 점수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의 경우 남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지도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정현희, 최경순, 1997).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유형과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명령을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한지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전인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인성지향형일 경우 유아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지고 상호작용적 또래놀이도 좋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명령지향형일 경우 유아의 놀이 단절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짐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연구 결과는 일관성있게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권희경 (200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학회지**, 1(1), 27-39.

- 김경혜, 안선희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 간 요구전략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12), 113-123.
- 김낙홍, 장소정(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4), 121-138.
- 김성원, 김종현 (2005). 어머니 언어통제 유형변화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연구**, 14, 68-78.
- 김여가 (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진영, 김상미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2), 315-334.
- 남현영, 이소은 (2004).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 문제해결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485-496.
- 도혜숙 (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혜영, 엄정애 (2007).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4), 87-96.
- 양경수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9(2), 75-84.
-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3(2), 185-201.
- 이미경 (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22(3), 191-206.
- 이양순 (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화, 유가효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1), 89-105.
- 이윤희 (2000). 부모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숙, 강경석, 허은진 (200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61-83.
- 전인옥, 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정재용, 김낙홍, 김지혜, 유은영 (2010). 아버지와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유아 자아 유능감 및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 **영유아교육학논집**, 14(5), 349-365.
- 정현희, 오미경 (199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4), 85-95.
- 정현희, 최경순 (199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63-175.
- 정혜진, 이완정 (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한국보육학회지**, 3(1), 39-56.
- 조성자, 이승희 (199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요인과 자아존중감 요인과의 관계. **아동교육**, 6(1), 111-126.
- 주미정 (2004).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공격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민경, 한운경 (2003). 유아의 셀프 리더십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 정서지능의 영향 분석. **미래유아교육**, 16(3), 219-250.
- 허정목 (2005).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과 유아의 공격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연덕, 이진숙 (2012).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 **아동학회지**33(1), 223-236.
-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self 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interactive peer play. The subjects were pairs of 195 three, four and five year-old-children and their fathers. Data were analyzed with mean, standard deviation, and bivariate correlation. Results indicated that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n's self 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interactive peer play. Father's person-oriented control verbal mode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self-recognition, self-emotion, social competence, leadership and interactive peer play while imperative control verbal mode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instability, interrupted play behavior, and disturbed play behavior.

▶ *Key Words* :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self 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interactive peer play*

논문투고	2013. 08. 14.
수정원고접수	2013. 09. 28.
최종게재결정	2013. 10. 20.